

◎ 활발히 활동하는

○ 한국가금협회

부산 경남 지부

가금에 관한 새로운 지식과 과학적 기술을 교환촉진하며 가금사업의 개량발전을 꾀하고 회원 상호간의 연락과 협조를 도모하며 가금업자의 경제적 사회적인 지위향상을 위하여 설립한 가금협회에서는 그 활동을 전국적으로 확대시키기 위하여 각도에 7개의 지부를 설치하고 있지만 현재의 여건으로는 지부활동에 기대를 걸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런중에도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부산 경남 지부의 활동은 어떤지 알아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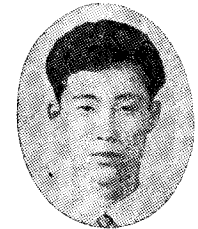
부산경남지부는 부산 동아대학교 교수 이병달 지부장을 주축으로 이봉우 상무의 적극적인 활동, 부산경남지부 양제인, 관련업체, 관련기관의 협조로 부산 동구 범일동 667번지에 사무실을 독립하고 1971년도 사업계획서를 완성 추진중이다. 사업계획서의 골자를 보면 매월 강습회 개최, 년 1회 회지 발간, 양계의 보급, 생산물의 소비확대, 양계경영진단 등이며 지난 3월 6일(토) 오후 2시 서면 동보유치원에서는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시 신중백 축정제장, 조만제 공무원교육원 교수, 이봉우 상무이사 제씨등의 강의로 3월중 월례강습회를 성황리에 끝마쳤다.

강습회 강의 내용의 골자를 보면 부산시 축정제장 신중백씨는 “정부의 축산정책과 부산시의 축산행정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부산시의 양계

단지 조성을 위하여 700만원, 14명의 우수 양계인을 선정 50만원씩 응자할 계획임을 밝히고, 농림부에서 개최한 축산관계 행정실무자 회의참석 보고와 앞으로 부산지방의 사료공장, 부화장, 기타 업체에 대해 철저한 감독을 실시하겠다는 요지의 강연에 이어 “나의 15년간 양계경험”이란 제하의 조만제 공무원 교육원 교수의 강연이 있었다.



<이병달 지부장>



<이봉우 상무>

한편 이봉우 상무는 현재 부산지방의 악덕 부화인들이 계통이 확실치 못한 종란을 내놓는다고 지적, 앞으로 가금협회 부산지부로서는 이를 막기 위해 고발조치라도 불사하겠다고 태도를 밝혔다.

부산종합 양계센터 박문갑사장은 부산시 지정 종계장 운영이 잘 안되어 어려운 상태이나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중간마진을 없애는데 주력하겠다고 그의 소신을 피력하였다.

이와 같이 활발히 움직이는 부산경남지부의 활동이 더욱 강화되어 점점 발전할 것은 물론 지역 양계업발전에 선봉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바라고 싶다. □□



<3월의 월례강습회 광경>